

#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기초역량이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박정현<sup>1</sup>, 장경애<sup>2\*</sup>

<sup>1</sup>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sup>2</sup>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The Convergence Effects of Key Vocational Competency on Career Decision Mak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Jung-Hyun Park<sup>1</sup>, Kyeong-Ae Ja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Daegu, 41453, Korea

<sup>2</sup>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기초역량이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부산과 울산지역의 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196명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직업기초역량 인식수준은 3.38점, 진로 의사결정은 3.30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기초역량의 하부요인 중 직업윤리 인식 수준이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기초역량이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능력( $p < 0.01$ ), 조직이해능력( $p < 0.01$ ), 자원관리능력( $p < 0.01$ ), 자기개발능력( $p < 0.05$ ), 문제해결능력( $p < 0.05$ ), 수리능력( $p < 0.05$ )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기초역량 강화는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여요소이므로 치위생 교육이 전공역량과 더불어 직업기초역량을 골고루 갖추 수 있도록 학생개인, 학과, 대학차원의 융합적 노력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기초역량, 진로 의사결정, 치위생(학)과,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effects of key vocational competency on career decision mak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To this end, 196 students with an experience of clinical field training, who we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universities of Busan and Ulsan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program. The subjects' awareness level of key vocational competency was 3.38 points, while that of career decision making was 3.30 points. Among the sub-factors of key vocational competency, the awareness level of professional ethics was 3.46 points, which was the highest. As factors of key vocational competency affecting career decision making, interpersonal skills( $p < 0.01$ ), skills for understanding groups( $p < 0.01$ ), resource management skills( $p < 0.01$ ), self-development skills( $p < 0.05$ ), problem-solving skills( $p < 0.05$ ), and mathematical skills( $p < 0.05$ )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t is necessary to make student individual, departmental, and university level convergence efforts and to develop curriculum so that dental hygiene education can help students equip with the key vocational competency as well as major competency.

**Key Words** : Communication skills, Problem-solving skills, Career decision maki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Kyeong-Ae Jang (jka@silla.ac.kr)

Received August 23,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27,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고도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요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모든 직종에 구분 없이 인적자원에게 핵심적이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와 대학의 중요한 평가지표의 하나인 취업률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에서 직업기초능력 교육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대학교육은 대부분 지식기반으로 이루어져 학교와 기업에서 중점을 두는 역량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1].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직무능력을 표준화하기 위해 산업부분별, 수준별로 국가직무표준능력을 개발하였고, 모든 능력단위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10개의 영역과 34개의 하위영역으로 직업기초능력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2]. 각 직업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직업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치과위생사도 조직사회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 치위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직무적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과 역할을 습득하여 효과적으로 조직사회에 적응해야 한다[3].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9.5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중 26.2%가 3년 미만에 직장을 떠나고, 44.6%가 6년 이내로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불과 25.9%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64.0%가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간호사가 76.0%로 가장 높고, 치과위생사도 61.8%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4]. 치과위생사의 이직의 원인으로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5], 대인관계 영역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6]. 조직내 구성원의 역할 갈등도 이직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7].

치과위생사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조직 내 상·하간 동료간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 관리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여 조직 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8]. 직장생활의 부적응과 불만족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직, 재취업, 실업에 따른 인력낭비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을 야기한다. 따

라서 치과위생사도 직업사회의 적응과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위생 전공능력과 함께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그동안 치위생 교육과정은 국가고시 위주로 집중되어 있었으나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인관계술과 자기개발 등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9]. 직업기초능력은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학생들 역시 이러한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졸업 후 취업 전선으로 직면하게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직업기초능력이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이나 진로 방향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이었으며, 직업사회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직업능력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0,11].

이에 본 연구는 치과임상실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과위생사 직업 환경을 경험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미래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양질의 진로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과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Cohen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 power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didcr), 검정력 80%, 효과크기 0.5의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 3

월 2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설문지를 응답하게 하였고, 조사대상자의 206명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0명을 제외한 최종 196명(95.1%)을 최종 분석하였다.

## 2.2 연구방법

설문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기초역량, 진로의사결정으로 구분된다. 직업기초역량의 측정변수는 [12]의 연구, 진로의사결정의 측정변수는 [13]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직업기초역량, 진로의사결정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고, 직업기초역량의 세부요인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과 KMO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Table 1과 같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Cronbach's $\alpha$
Key vocational competency	0.968
Career decision making	0.862

##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진로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업기초역량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하고 직업기초역량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과 직업윤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 95.9%, 남 4.1%로 나타났고, 학년은 3학년 62.2%, 4학년 26.5%, 2학년 11.2%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8	4.1
	Female	188	95.9
Grade	2	22	11.2
	3	122	62.2
	4	52	26.5
		196	100.0

### 3.2 직업기초역량과 진로의사결정의 인식수준

직업기초역량과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업기초역량의 인식수준과 진로의사결정 평균은 각각 3.38점, 3.30점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역량의 하위요인 중 직업윤리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원관리능력 3.44점, 자기개발능력 3.41점, 대인관계능력 3.40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Awareness Level of Key Vocational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Variables		M $\pm$ SD
Key vocational competency	Communication skills	3.38 $\pm$ 0.89
	Mathematical skills	3.24 $\pm$ 0.91
	Problem-solving skills	3.35 $\pm$ 0.92
	Self-development skills	3.41 $\pm$ 0.88
	Resource management skills	3.44 $\pm$ 0.90
	Interpersonal skills	3.40 $\pm$ 0.91
	Technological skills	3.34 $\pm$ 0.89
	Skills for understanding groups	3.37 $\pm$ 0.88
	Professional ethics	3.46 $\pm$ 0.97
	Total	3.38 $\pm$ 0.84
Career decision making		3.30 $\pm$ 0.86

### 3.3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능력은 수리능력( $r=0.738$ ,  $p<0.01$ ), 문제해결능력( $r=0.775$ ,  $p<0.01$ ), 자기개발능력( $r=0.707$ ,  $p<0.01$ ), 자원관리능력( $r=0.690$ ,  $p<0.01$ ), 대인관계능력( $r=0.762$ ,  $p<0.01$ ), 기술능력( $r=0.645$ ,  $p<0.01$ ), 조직이해능력( $r=0.665$ ,  $p<0.01$ ), 직업

윤리(r=0.512, p<0.01), 진로의사결정(r=0.428,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수리능력은 문제해결능력(r=0.676, p<0.01), 자기개발능력(r=0.587, p<0.01), 자원관리능력(r=0.590, p<0.01), 대인관계능력(r=0.612, p<0.01), 기술능력(r=0.624, p<0.01), 조직이해능력(r=0.567, p<0.01), 직업윤리(r=0.435, p<0.01), 진로의사결정(r=0.432,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자기개발능력(r=0.698 p<0.01), 자원관리능력(r=0.714, p<0.01), 대인관계능력(r=0.707, p<0.01), 기술능력(r=0.665, p<0.01), 조직이해능력(r=0.622, p<0.01), 직업윤리(r=0.535, p<0.01), 진로의사결정(r=0.369,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개발능력은 자원관리능력(r=0.768, p<0.01), 대인관계능력(r=0.790, p<0.01), 기술능력(r=0.685, p<0.01), 조직이해능력(r=0.695, p<0.01), 직업윤리(r=0.598, p<0.01), 진로의사결정(r=0.3513,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원관리능력은 대인관계능력(r=0.745 p<0.01), 기술능력(r=0.667 p<0.01), 조직이해능력(r=0.790, p<0.01), 직업윤리(r=0.537, p<0.01), 진로의사결정(r=0.464,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은 기술능력(r=0.756 p<0.01), 조직이해능력(r=0.727, p<0.01), 직업윤리(r=0.662, p<0.01), 진로의사결정(r=0.486,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능력은 조직이해능력(r=0.740, p<0.01), 직업윤리(r=0.623, p<0.01), 진로의사결정(r=0.460,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이해능력은 직업윤리(r=0.608, p<0.01), 진로의사결정(r=0.411,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윤리는 진로의사결정(r=0.371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parameter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									
2	.738**	-								
3	.775**	.676**	-							
4	.707**	.587**	.698**	-						
5	.690**	.590**	.714**	.768**	-					
6	.762**	.612**	.707**	.790**	.745**	-				
7	.645**	.624**	.665**	.685**	.667**	.756**	-			
8	.665**	.567**	.622**	.695**	.608**	.727**	.740**	-		
9	.512**	.435**	.535**	.598**	.537**	.662**	.623**	.608**	-	
10	.428**	.432**	.369**	.513**	.464**	.486**	.460**	.411**	.371**	-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1: Communication skills, 2: Mathematical skills, 3: Problem-solving skills 4: Self-development skills, 5: Resource management skills, 6: Interpersonal skills, 7: Technological skills, 8: Skills for understanding groups, 9: Professional ethics, 10: Career decision making

### 3.4 직업기초역량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직업기초역량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업기초역량의 하부요인인 대인관계능력(p<0.01), 조직이해능력(p<0.01), 자원관리능력(p<0.01), 자기개발능력(p<0.05), 문제해결능력(p<0.05)과 수리능력(p<0.05)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Convergence Effects of Key Vocational Competency on Career Decision Making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EXP (β)	p
Constant	0.372	0.132		0.005
Mathematical skills	0.230	0.094	0.243	0.015
Problem-solving skills	0.179	0.083	0.191	0.032
Self-development skills	0.203	0.099	0.209	0.042
Resource management skills	0.242	0.090	0.253	0.008
Interpersonal skills	0.305	0.087	0.324	0.001
Skills for understanding groups	0.293	0.089	0.302	0.001

F=62.120, p<0.001, R2=0.738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 4. 고찰 및 결론

빠르게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공능력 뿐만 아니라 직업기초역량도 중요하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치위생 업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공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등 직업기초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치위생 교육과정개발과 학생들의 양질의 진로의사 결정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기초역량의 인식수준은 3.38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기초역량의 하부요인 중 직업윤리 인식

수준이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14]의 연구 결과에서 직업기초역량의 인식수준이 3.39점, 하부요인 중 직업윤리 인식수준이 3.57점으로 나타난 점에서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 인식수준이 3.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는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현재 치위생(학)과 학생으로 치과임상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치과위생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험을 하였고, 양[14]의 연구 대상자는 현직 치과위생사로 직접 환자와 대면하고 조직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직업기초역량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김 등[1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외향적인 성격 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1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진로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인 하부요인으로 자긍심과, 의사소통능력, 추진력과 도전의식, 국제 감각,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진로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17]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의료진, 스텝 등의 의료인력의 중재자 역할을 함에 따라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직업기초역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역능력은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직업윤리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직업사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함께 자기관리, 의사소통, 구성원 간의 협력, 종합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등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치위생(학)과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로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직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잘 함양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위생사의 능력이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와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므로 직업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본연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직종이 육체적노동과 감정적노동이 같이 이루어진다. 직업사회에 필요한 기본역량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조직사회 관계갈등, 직무의 불안정, 직장문화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자아 존중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18], 직무만족도와 이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19]. 또한 업무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높고 직장 내 상사와 동료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직무몰입을 높인다고 하였다[20]. 그리고 치과임상실습을 다녀온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2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은 높게 나타났고, 감정 노동이 낮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 강화는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여 요소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직업사회에 성공적인 적응과 직무 만족, 치과위생사의 자부심과 직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에 치위생(학)과 교육은 전공영역에 치중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학교 교육에서 전공역량과 직업기초능력을 융합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치위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각 학년별, 단계별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개발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학생 개인, 학과, 대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되기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기초역량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대부분 현직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나 요소를 조사한 연구로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가 힘든 점이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을 세분화하여 직업기초역량과 관련성을 알아본다면 더 양질의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기초역량

강화는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여요소임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직업사회에 성공적인 적응과 직무 만족, 치위생사의 자부심과 직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위생교육 전공역량과 더불어 직업기초역량을 융합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학생 개인, 학과, 대학차원의 융복합적 노력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D. W. Yoon & H. J. Woo & B. J. Ghang & Y. H. Kim. (2016). Needs analysis case using key competencie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2), 383-398.  
DOI : 10.5392/JKCA.2016.16.12.383
- [2] J. S. Kim. (2014). Activation plan for use of NCS.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 [3] H. Y. Kim & H. M. Kim & J. S. Lee & S. Y. Lee. (2015). The Influence of Inservice Training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ew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5), 560-568.  
DOI : 10.17135/JDHS.2015.15.5.560
- [4] J. S. Lee & H. J. Jeong & S. H. Kim & H. J. Kim. (2016).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healthcare worker. Seoul :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 [5] E. M. Yoo & H. J. Han. (2011). A study on the work and turnove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1), 41-46.
- [6] M. L. Lee & H. C. Lee. (2016). The Effect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6(2), 303-311.  
DOI: 10.13065/JKSDH.2016.16.02.303
- [7] J. H. Lee & H. E. Kim & J. S. Chio.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turnover among dental hygienists: mediating effects of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9(2), 119-126.  
DOI: 10.11149/JKAOH.2015.39.2.119
- [8] S. R. Jeong & J. E. Kim & J. S. Jang.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conflict level within the organiz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1), 38-45.  
DOI : 10.17135/JDHS.2015.15.1.38
- [9] S. K. Yang. (2011). Curricuium components affecting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5), 455-462.
- [10] G. O. Jung & G. Y. Chio & J. Y. Bae. (2013).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3(1), 61-68.
- [11] S. J. Moon & I. Y. Ku & H. Y. Choi & K. H. Ka & (2015). A Study on enrollment satisfaction, career directions, and image of dental hygienists for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564-575.  
DOI : 10.5762/KAIS. 2015.16.1.564
- [12] S. G. Yun. (2015). A study on college's NCS-Based curriculum that integrates key competencies with job compet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13] M. S. Cho & C. S.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s of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4(5), 649-658.  
DOI : 10.13065/JKSDH.2014.14.05.649
- [14] S. K. Yang. (2015). Vocational competency constituents affecting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0), 6558-6566.  
DOI : 10.5762/KAIS.2015.16.10.6558.
- [15] K. H. Kim & E. H. Hwang.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36-445.  
DOI : 10.5762/KAIS.2016.17.2.436
- [16] S. J. Lee. (2013). Analysis of relations among core competenc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korea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1), 119-139.
- [17] N. H. Hong. (2016). Priority analysis of NCS based vocational core competency of dental hygienists in Gwangju.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6(3), 337-346.  
DOI : 10.13065/JKSDH.2016.16.03.337
- [18] D. H. Hwang & S. Eom.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working on job stres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67-74.  
DOI : 10.15207/JKCS.2016.7.067

- [19] M. H. Kang & S. J. Jang. (2017).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the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95-103.  
DOI : 10.15207/JKCS.2017.8.8.095
- [20] D. Y. Jeung & S. J. Chang & H. J. Noh & W. G Chung. (2015). Effects of educational training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job involvement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4), 465-471.  
DOI : 10.17135/jdhs.2015.15.4.465
- [21] J. H. Choi. (2018). Convergence factor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on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99-104.  
DOI : 10.15207/JKCS.2018.9.5.099

박 정 현(Park, Jung Hyun)

[정회원]



- 2010년 8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3년 3월 ~ 2018년 2월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최신치과임상학 2, 치과교정학
- E-Mail : akrtla81@dhc.ac.kr

장 경 애(Jang, Kyeong Ae)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 E-Mail : jka@silla.ac.kr